

# 『海東文獻總錄』 수록 도서의 질적 평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of Titles Included in  
*Haedong-munheon-chongnok*

리 상 용 (Lee, Sang-Yong)\*\*

## ◁ 목 차 ▷

1. 서 론	3.1 저자 사항
2. 『해동문헌총록』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 분석	3.2 내용 사항
2.1 내재적 가치	3.3 도서관 또는 독자에의 유용성
2.2 사상적 가치	4. 결 론
3.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의 비교	<참고문헌>

## < 초 록 >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해제목록인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에 수록된 각 서적의 해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서적들의 질적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먼저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서적의 수준 평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를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였다. 결과를 말하면, 여기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목록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저자의 수준과 내용 면에서 현대의 양서(良書)의 평가기준을 상회하는 훌륭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要語: 경와, 김휴, 해동문헌총록, 장서선정기준, 장서개발

\*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2011년 연구년 수혜에 따른 결과임.

This article was done during the author's sabbatical leave at the Department of South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Malaya in 2011.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1년 9월 6일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19일

<ABSTRACT>

The writer, by reviewing their book annotations, investigated the academic values of the titles included in *Haedong-munheon-chongnok*, An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Korean Books, compiled by Kim Hyu in the 17th century. This paper examined various evaluation methods adopted in *Haedong-munheon-chongnok*, and then compared them to the book selection criteria applied by modern libraries. The writer found that the academic qualities of those books listed in *Haedong-munheon-chongnok* were even more excellent than the modern criteria for good books in the point of level of authors and contents.

Key words: Gyeong wa, Kim Hyu, *Haedong munheon-chongnok*, Library criteria of book selection, Collection Mngement

## 1. 서론

현전하는 조선시대 최초의 해제목록인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은 경와 김휴(敬窩金休, 1597-1638)가 스승 여헌 장현광(旅軒張顯光, 1554-1637)의 권유로 1616년(광해군 8년)에서 1638년(인조 16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경상북도 안동(安東)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명문대가에 소장된 문헌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이다. 동 목록의 편찬목적은 임진왜란 때 비교적 피해를 덜 본 그 지역의 문헌목록을 편찬하여 후대에 문헌을 징빙(徵憑)하고, 고증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sup>1)</sup> 이 『해동문헌총록』이 『군서표기(群書標記)』, 『규장총목(奎章總目)』, 『누판고(鏤板考)』,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 등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역대 해제목록과 다른 점은 중국의 사부분류법이 아닌 독자적인 분류방식을 채용하였으며, 수록된 서적이 거의 한국인 저작이라는 점이다.

기존에 나온 『해동문헌총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주진,<sup>2)</sup> 윤남한<sup>3)</sup> 등이 간략한 해제를 기술했으며, 본격적인 연구로는 배현숙,<sup>4)</sup> 김약슬,<sup>5)</sup> 박인호,<sup>6)</sup> 김건곤<sup>7)</sup> 등의 것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해동문헌총록』의 저자와 그의 가계, 찬술동기, 분류체계의 분석, 수록된 고려시대의 문집 등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나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서적의 전체 해제를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여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해 평가한 연구는 아직 없다.

필자는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전체 도서를 대상으로 그의 질적 수준 평가

1) 裴賢淑, “海東文獻總錄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75), 5-36. 金休, 『해동문헌총록』 海東文獻錄序 (서울: 학문각, 1969).

2) 강주진, 해동문헌총록해제와 간행서, 『해동문헌총록』 (서울: 학문각, 1969), 1-7.

3) 윤남한 해제, “金休 著 海東文獻總錄,” 『한국학』 2(74. 3), 5-6.

4) 배현숙, “해동문헌총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75).

5) 김약슬, “경와집에 대하여,” 한국서지학회. 『서지학』 7(1982), 121-125.

6)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2006), 65-98.

7) 김건곤, “『해동문헌총록』 소개 고려문집 연구: 부전문집을 중심으로,” 『藏書閣』 18(2007. 12), 57-88.

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서목에 수록된 서적에 대한 질적 수준 평가는 특정 컬렉션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17세기 중엽에 편찬된 서목인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 평가를 현대 문헌정보학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조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해동문헌총록』은 김휴가 20여년 이란 긴 편찬과정을 거치면서 후대에 전할 만한 서적을 나름대로 엄선한 것이다. 수록된 거의 모든 서적에 해제가 붙어 있는데, 상당수의 해제에서 그 서적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로 해석할 만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평가 내용은 유형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도서를 대상으로 그들 도서의 해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의 질적 수준을 유형별로 유취해 본 후에 이를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해동문헌총록』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 분석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각 저록의 해제에서는 그 서적의 저자와 내용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609종의 도서의 해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서적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로 해석할 만한 내용을 담은 것은 대략 250여 종(약 41%)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해제목록인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에 수록된 서적의 평가기준(전체 472종 중 260종 55%), 『군서표기(群書標記)』에 수록된 서적의 평가기준(전체 155종 중 100여종 약 65%) 등에 비하면 다소 낮은 비율이고, 『누판고(鑄板考)』에 수록된 서적의 평가기준(전체 610종 중 240여종 약 40%)과 거의 유사한 비율이다. 하지만 수록된 상당수의 서적에 대해 질적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해동문헌총록」에서는 대부분 도서의 내용보다 저자를 중심으로 해제를 했으며, 해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휴가 그 책을 읽은 소감을 직접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해당 서적의 서문 또는 발문, 또는 그 서적 또는 저자에 대해 다른 책 또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내용 등을 인용, 축약, 정리해 놓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김휴 자신이 직접 목록을 편찬한 만큼 그가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들과 입장을 함께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해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서적의 질적인 수준을 1) 내재적 가치, 2) 사상적 가치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현대 문헌정보학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1 내재적 가치

서적의 내재적 가치란 도서 자체가 지니는 본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 주제분야의 서적 중에서 저자의 권위, 문장 또는 내용의 수준이 타 서적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1) 저자의 인물됨이나 문장을 중시한 경우, 2) 내용이 우수한 경우, 3)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하거나 수록범위가 방대한 경우, 4) 기존 서적의 핵심내용을 정선하거나 요약 정리한 경우, 5) 대중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편찬한 경우, 6) 내용적인 가치가 없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1 저자의 인물됨이나 문장을 중시한 경우

목록을 편찬할 때 수록할 서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저자에 대한 평가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해동문헌총록」에서는 후대에 편찬된 여타목록에 비해 저자의 인물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고 해제를 하였다. 이 같은 이유는 「해동문헌총록」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오로지 경적을 위해서 저술한 것이다. 반드시 그 작자의 행적을 밝힌 다음에야 그 책을 꼭 전해야 할지 여부를 믿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인물의 출처를 우선으로 하고, 문장의 논의는 그 다음으로 하였다(此書則專爲經籍而作 必明其作者之行跡 然後可信其書之必傳與否 故先之以人物出處次及其文章議論).<sup>8)</sup>

이처럼 김휴는 『해동문헌총록』의 수록도서 선정 시에 저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저자의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인물을 논할 때는 반드시 그 기량과 지식을 먼저 살핀 다음에 그 문예를 보고, 작자를 논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행적을 살핀 다음에 그 문장을 알아야 한다.”<sup>9)</sup>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휴가 이같이 저자에 대해 중점을 둔 이유가 바로 “맹자께서 ‘그 시를 외우고 그 책을 읽는다 해도 그 사람을 모른다면 옳은 일인가?’라고 하셨는데 그 시를 외우고 그 책을 읽고도 그 사람의 처심과 행사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외우지 않고 읽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저자의 행적을 먼저 기술하고 문장을 뒤에 다룬 이유는 참으로 맹자의 유지를 따른 것.”<sup>10)</sup>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김휴는 이 목록의 편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위로는 최치원부터 아래로는 조선조까지 천여년 동안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 뛰어난 재주를 지닌 인재와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앞뒤로 줄을 이으니,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sup>11)</sup>고 하면서 이 목록에 수록할 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수록된 저자는 1) 대학자인 경우, 2) 대문장가이거나 시인인 경우, 3) 특정분야에 조예가 있거나 전 주제분야에 해박한 경우, 4) 저자의 학파나 교우관계를 밝힌 경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8) 金休, 『海東文獻總錄』 海東文獻錄序 (서울: 학문각, 1969), 2.

9) 위의 책. 4. 海東文獻錄序.

凡論人物者 必須先器識而後文藝 論述作者 必須先行跡而後文章.

10) 위의 책. 4. 海東文獻錄序.

孟子曰 誦其詩讀其書 不知其人可乎 夫誦其詩讀其書 而不知其人處心行事之如何 則實與不誦不讀何異 … 然則余所以先述其行跡 後及其文章者 實有見於鄒聖之遺意也.

11) 위의 책. 6. 海東文獻錄序.

上自崔文昌 下至本朝 千有餘年間 志士仁人 宏才巨擘 前後相望 不知其幾許.

다음과 같다.

### 2.1.1.1 대학자인 경우

전 시대와 전 주제분야를 망라하는 해제목록을 편찬하면서 수록된 도서의 저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동문헌총록』 역시 각 주제 분야에 수록된 저자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각 주제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이거나 문장이 뛰어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그 인물의 문장이나 저술 내용보다도 그 인물의 품성과 위업 또는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경우도 있다. 이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시 유학의 종주(宗主) 역할을 한 큰 선비에 대해 평가한 사례로 『포은선생문집(圃隱先生文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은선생문집』 정몽주 지음. … 공은 천품이 지극히 높고 호탕하고 인품이 뛰어나며 충효와 큰 절개를 지녔으며, 성리학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깊이 깨우친 분이다. … 목은이 극칭하기를 ‘정몽주의 이론은 말을 아무렇게나 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며 그를 동방 성리학의 원조로 추대했으며 … 퇴계선생도 ‘포은의 순결한 충의와 크나큰 절개는 천지에 법이 되고, 우주를 받치는 동량’이라고 하였다(圃隱先生文集 鄭夢周所著 … 公天兮至高 豪邁絕倫 有忠孝大節 研精性理之學 深有所得 … 牧隱亟稱之曰 達可論理 橫說豎說 無非當理 推爲東方理學之祖 … 退溪先生曰 圃隱之精忠大節 可謂經緯天地 棟樑宇宙).<sup>12)</sup>

위의 해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포은의 천품과 충효와 절개 등을 극찬하고, 목은과 퇴계의 말을 인용하여 그가 당시 최고의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당대의 대학자인 퇴계선생에 대해서도 “동방 성리학의 종주(宗主)”<sup>13)</sup>라고 평가하고, 남

12) 위의 책. 151-153. 圃隱先生文集.

본 논문의 일부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 DB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수정하였다.

13) 위의 책. 259. 退溪先生文集.

東方理學之宗.

명 조식에 대해서도 “선생은 간세(間世)의 영웅호걸”<sup>14)</sup>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김종직(金宗直)의 문집인 『점필재집(佔畢齋集)』에서도 “몸가짐이 단정 성실하고 학문이 정밀하고 심오하며, 문장이 고고(高古)하여 당대 유종(儒宗)이며 한 시대의 명사들이 그의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sup>15)</sup>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한 시대를 이끈 큰 선비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 2.1.1.2 대문장가이거나 시인인 경우

『해동문헌총록』의 해제에서는 당대에 뛰어난 문장가이거나 시인에 대해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의 문인인 임춘(林椿)의 『서하집(西河集)』의 해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하집』 임춘 지음. … 문장은 고문을 얻고, 시는 소아(騷雅)의 풍골이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포의로 세상을 응시(雄視)한 사람은 서하 한 사람뿐이다(西河集 林椿所著 … 文得古文 詩有騷雅之風骨 自海以東 以布衣雄世者 唯西河一人而已).<sup>16)</sup>

이처럼 고려 중기에 포의로서 당대에 뛰어난 문장가인 임춘의 문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당대의 대시인에 대해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박은의 문집인 『읍취헌집(攄翠軒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읍취헌집』 박은 지음. … 문장으로 한 시대에 유명하였다. 을축년에 추가로 논핵하는 일로 동래(東萊)에 귀양 갔다가 피살되었다. 당시 나이 25세이다. …

14) 위의 책. 262. 南冥集.  
曹植所著 … 先生可謂間世之英豪矣.

15) 위의 책. 219. 佔畢齋集.  
金宗直所著 … 操履端慤 學問精深 文章高古 爲一世儒宗 誨人不倦 一時名賢碩士 多出其門.

16) 위의 책. 124-125. 西河集.

남곤이 일찍이 말하기를 ‘박은의 시와 김일손의 문장은 국조 이래 이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드물다’고 하였다(挹翠軒集 朴闇所著 … 以文章名世 乙丑追論言事 謫東萊被殺 時年二十五 … 南袞嘗曰 朴闇之詩 金駟孫之文 國朝以來 罕有其比).<sup>17)</sup>

이처럼 젊은 나이에 죽은 천재시인 박은에 대해서 김일손의 문장과 더불어 극찬하는 내용의 해제를 수록하고 있다.

『김부식문집(金富軾文集)』에서도 “그가 문장으로 세상에 유명하다.”<sup>18)</sup>고 평하고, 박승임(朴承任)의 문집인 『소고집(嘯臯集)』에서도 “그의 문장이 전아(典雅)하고 기려(奇麗)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sup>19)</sup>고 하고, 『은대집(銀臺集)』에서도 “이인로(李仁老)가 시로 세상에 유명하다.”<sup>20)</sup>고 평가하고 있다. 『우암집(尤庵集)』에서도 “저자 홍언충(洪彦忠)이 시로 세상에 유명하다.”<sup>21)</sup>고 하고, 『소요재집(逍遙齋集)』에서도 “저자 최숙정(崔淑精)의 시와 문장이 매우 뛰어나다.”<sup>22)</sup>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밖에 승려 평연(宏演)이 저술한 『죽간집(竹澗集)』에서 “그가 원나라의 대학자인 구양현(歐陽玄), 위소(危素) 등과 교류했는데 그의 시가 가장 웅건하다.”<sup>23)</sup>고 하여 승려인 그의 시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불가의 인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로 최치원(崔致遠)의 『씨씨문집(崔氏文集)』<sup>24)</sup>, 노수신(盧守愼)의 『소재집(蘇齋集)』<sup>25)</sup>, 신용개(申用溉)의 『이요정집

17) 위의 책. 237. 挹翠軒集.

18) 위의 책. 121. 金富軾文集.  
金富軾所著 … 以文章名世.

19) 위의 책. 278. 嘯臯集.  
朴承任所著 … 文章典雅奇麗 最名于世.

20) 위의 책. 127-128. 銀臺集.  
李仁老所著 … 以詩名世.

21) 위의 책. 236. 寓庵集.  
洪彦忠所著 … 以詩名世 又有氣節.

22) 위의 책. 214. 逍遙齋集.  
崔淑精所著 … 詩文絕倫.

23) 위의 책. 304. 竹澗集.  
釋宏演所著 … 入元與歐陽玄危素交遊 詩最健.

『二樂亭集』<sup>26)</sup>, 이행(李行)의 『기우자집(騎牛子集)』<sup>27)</sup>, 신광한(申光漢)의 『기재집(企齋集)』<sup>28)</sup>, 서거정(徐居正)의 『사가집(四佳集)』<sup>29)</sup>, 정구(鄭述)의 『수은집(垂隱集)』<sup>30)</sup>, 이승소(李承召)의 『삼탄집(三灘集)』<sup>31)</sup> 등 여러 종이 있다.

저자의 문장을 극찬하는 과정에서 한 시대의 고문대책(高文大冊)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허백당집(虛白堂集)』에 나타난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백당집』 성현 지음. … 그 문장은 웅장하고 넓고 풍부하며, 글귀만을 수식하지 않았으며, 시는 더욱 호건(豪健)하다. 한 시대의 고문대책(高文大冊)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虛白堂集 成俔所著 … 爲文章雄瞻宏富 不事雕篆 詩尤豪健 一時高文大冊 皆出其手).<sup>32)</sup>

그는 성현의 문장과 시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이와 함께 당시의 고문대책(高文大冊)을 만든 인물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규보(李奎報)의 『이상국집(李相國集)』<sup>33)</sup>, 김양경(金良鏡)의 『김양경시집(金

24) 위의 책. 117. 崔氏文集.

崔致遠所著 … 嘗檄黃巢 … 由是 名震天下.

25) 위의 책. 275. 蘇齋集.

盧守愼所著 … 能文章 名重一時.

26) 위의 책. 183. 二樂亭集.

申用漑所著 … 能文章 名重一時.

27) 위의 책. 193. 騎牛子集.

李[行]所著 … 以文章著稱于世.

28) 위의 책. 183. 企齋集.

申光漢所著 … 天資豪邁 風度高古 文章典雅 爲一時推重.

29) 위의 책. 199-200. 四佳集.

徐居正所著 … 叢話云 爲詩專做韓陸之體 隨手輒成艷麗無雙.

30) 위의 책. 274. 垂隱集.

鄭述所著 … 茫然自失 深歎其學問之博洽 詞意之精深 雖世之號爲文章巨擘者 鮮有能及者.

31) 위의 책. 198. 三灘集.

李承召所著 … 以文章名世.

32) 위의 책. 204-205. 虛白堂集.

33) 위의 책. 126. 李相國集.

李奎報所著 … 一時高文大冊 皆出其手.

良鏡詩集)』<sup>34)</sup>, 이인복(李仁復)의 『초은집(樵隱集)』<sup>35)</sup> 등 여러 종이 있다.

### 2.1.1.3 특정분야에 조예가 있거나 전 주제분야에 해박한 경우

『해동문헌총록』에서 저자에 대한 인물평을 하는 가운데, 그 저자가 특정분야에 조예가 있거나 전 주제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경우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지닌 사례로 『비해당집(匪懈堂集)』과 『청경집(淸卿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해당집』 안평대군 지음. … 학문을 좋아하고 시와 문장을 잘하였으며, 서법은 기막히게 절묘해서 천하제일이었다. 또한 그림 그리기와 거문고 타는 재주도 훌륭하였다(匪懈堂集 安平大君所著 … 好學 尤長於詩文 書法奇絕 爲天下第一 又善圖畫琴瑟之技).<sup>36)</sup>

『청경집』 윤회 지음. … 학문이 해박했으며 역사에 더욱 능통하였다(淸卿集 尹淮所著 … 學問該博 尤長於史).<sup>37)</sup>

이처럼 당대 최고의 명필가인 안평대군의 서법과 그의 그림, 거문고 실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윤회가 특히 역사를 아주 잘 했다고 평가해 주고 있다. 『청강집(淸江集)』에서는 “이제신(李濟臣)이 초서와 예서에 능하다.”<sup>38)</sup>고 하고, 『별동집(別洞集)』에서는 “윤상(尹祥)이 역학에 아주 정통하였다.”<sup>39)</sup>고 하고, 『성광유고(醒狂遺稿)』에서는 “주계군(朱溪君 본명 李深源)이 경사에 해박하고 의술에 정

34) 위의 책. 130-131. 金良鏡詩集.  
金良鏡所著 … 高文大冊 皆出其手.

35) 위의 책. 142. 樵隱集.  
李仁復所著 … 善屬文 國家詞命 皆出其手.

36) 위의 책. 210. 匪懈堂集.

37) 위의 책. 188. 淸卿集.

38) 위의 책. 278-279. 淸江集.  
李濟臣所著 … 能詩文 工草隸.

39) 위의 책. 196. 別洞集.  
尹祥所著 … 經術道德世罕出右 尤精於易學 一時皆推重焉.

통하다.”<sup>40)</sup>고 하고, 『적암집(適庵集)』에서는 “조신(曹伸)이 의학과 통역에 아주 능하다.”<sup>41)</sup>고 평가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독곡집(獨谷集)』<sup>42)</sup>, 『안재집(安齋集)』<sup>43)</sup>, 『화담집(花潭集)』<sup>44)</sup>, 『한석봉서첩(韓石峯書帖)』<sup>45)</sup> 등 여러 종이 있다.

이처럼 특정분야에 조예가 깊은 인물에 대해 평가한 경우도 있지만, 전 주제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인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다. 『식우집(拭疣集)』에서 “저자 김수온(金守溫)이 경사자집에서 노자, 장자, 불서에 이르기까지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다.”<sup>46)</sup>고 하면서 그의 해박한 지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로 『남도집(南都集)』<sup>47)</sup>, 『양심당집(養心堂集)』<sup>48)</sup> 등 여러 종이 있다.

#### 2.1.1.4 저자의 학과나 교우관계를 밝힌 경우

『해동문헌총록』에서 책의 저자에 대한 인물평을 하는 가운데 저자의 학과나

- 
- 40) 위의 책. 213. 醒狂遺稿.  
朱溪君[李深源] 所著 … 博洽經史 兼通醫術.
  - 41) 위의 책. 232. 適庵集.  
曹伸所著 … 又業醫與譯皆能 世目爲才府 七赴燕京 三往馬島.
  - 42) 위의 책. 194. 獨谷集.  
成石璘所著 … 筆法爲一時所重.
  - 43) 위의 책. 203. 安齋集.  
成任所著 … 爲人寬厚博雅 善書 眞草隸三法皆妙.
  - 44) 위의 책. 250. 花潭集.  
徐敬德所著 … 明於易理而用力尤深.
  - 45) 위의 책. 525. 韓石峯書帖.  
韓濩所書 … 筆法入神 車天輅贈石峯詩序曰 石峯墨蹟 妙一世.
  - 46) 위의 책. 201. 拭疣集.  
金守溫所著 … 自少好學不倦 博覽廣記 經史子家列莊老佛之書 靡不涉獵.
  - 47) 위의 책. 124. 南都集.  
崔惟淸所著 … 經史子集靡不該通.
  - 48) 위의 책. 257. 養心堂集.  
趙晟所著 退溪先生跋其後曰 趙君 … 通儒術 旁及於天文地理醫藥律呂筮數 無不精究而造其妙.

교우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먼저 저자의 학파에 관련된 사례로 『매헌집(梅軒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헌집』 권우 지음. 일찍이 포은문하에서 유학했다. 성리학에 정통하다(梅軒集 權遇所著 … 嘗遊圃隱門下 精於理學).<sup>49)</sup>

이처럼 권우가 포은문하에서 유학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로 『하곡시초(荷谷詩鈔)』<sup>50)</sup>, 『추강집(秋江集)』<sup>51)</sup> 등이 있다.

이밖에 학자들 상호간의 교류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다. 『둔촌집(遁村集)』에서는 “저자 이집(李集)이 포은, 목은, 도은 등 여러 현인들과 서로 친하게 벗으로 지냈다.”<sup>52)</sup>고 하고, 『눌재집(訥齋集)』에서도 “박상(朴祥)이 정암 조광조(靜庵趙光祖), 충암 김정(沖庵金淨) 등 여러 현인들과 서로 친하게 지냈다.”<sup>53)</sup>고 밝히는 등 학자들 간의 교류관계에 대해 밝혀주고 있다.

이 『해동문헌총록』에는 다른 해제에서 보기 어려운 특이한 사항이 나온다. 다른 해제목록에서는 주로 특정인물의 학파나 당파 또는 교우관계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학파(學派)에 속한 이유로 사화(士禍)에 연루되어 유배(流配), 사사(賜死) 등 처벌을 받은 인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쌍당집』 권홍 지음. … 정몽주 문인이라 하여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雙塘集 權弘所著 … 以鄭夢周黨流遠地).<sup>54)</sup>

49) 위의 책. 170. 梅軒集.

50) 위의 책. 283. 荷谷詩鈔.

許筠所著 … 嘗遊退溪先生之門 以儒雅稱.

51) 위의 책. 224. 秋江集.

南孝溫所著 … 師事佔畢齋.

52) 위의 책. 163. 遁村集.

李集所著 … 學問高邁 文章雅麗 與圃隱牧隱陶隱諸賢相友善 諸賢皆敬重焉.

53) 위의 책. 242. 訥齋集.

朴祥所著 … 與趙靜庵金沖庵諸賢相善.

54) 위의 책. 189. 雙塘集.

『용헌집』이중준 지음. … 무오사화 때 집필재 문인이라 하여 곤장 맞고 유배되었다(慵軒集 李宗準所著 … 戊午 以佔畢門徒杖流).<sup>55)</sup>

『음애집』이자 지음. … 기묘사화가 나와 정암 조광조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서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陰崖集 李籽所著 … 己卯禍作 與趙靜庵同被詔獄 蒙放削職).<sup>56)</sup>

이처럼 같은 학파에 속한 문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사화(士禍)에 희생당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 실상을 밝혀주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기헌집(忌軒集)』<sup>57)</sup>, 『이평사집(李評事集)』<sup>58)</sup>, 『초당집(草堂集)』<sup>59)</sup>, 『금남집(錦南集)』<sup>60)</sup> 등 여러 종이 있다.

### 2.1.2 내용이 우수한 경우

목록에 수록할 서적에 해제를 작성하면서 그 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서적에 대해 냉철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해제목록편찬자의 주요한 업무이다. 비록 김휴가 저자를 우선으로 하였지만, 책의 내용을 등한시 한 것은 아니다. 그가 『해동문헌총록』을 탈고하기 전에 그의 스승에게 질정을 받았는데, 그때 그의 스승이 김휴를 격려해 주시면서 문헌을 밝히려는 목적은 인물의 성쇠와 문장의 높고 낮음과 세도의 오르고 내림을 알리는 데 있다<sup>61)</sup>고 지적해 주신 것이다. 이 같은

55) 위의 책. 229. 慵軒集.

56) 위의 책. 246. 陰崖集.

57) 위의 책. 227. 忌軒集.

李胄所著 … 戊午 以佔畢門徒 流瑠島 被殺.

58) 위의 책. 226. 李評事集.

李穆所著 … 戊午 弼商挾前憾 以穆嘗受業於佔畢 構殺之.

59) 위의 책. 226-227. 草堂集.

姜景叙所著 … 戊午 以佔畢門徒 杖流會寧 後放還.

60) 위의 책. 228. 錦南集.

崔溥所著 … 戊午 以佔畢門徒 被逮.

61) 위의 책. 3. 海東文獻錄序.

故積以歲月 僅成若干帙 名之曰海東文獻錄 未及脫藁而急於取正 遂獻諸先生 先生不以

방침에 따라 그는 「해동문헌총록」의 해제에서 그 문장 또는 내용이 훌륭한 서적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적에 대해 혹평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해동문헌총록」의 해제에서 서적의 내용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해동문헌총록」의 해제에는 중국서적에 비해 한국서적의 우수성을 밝힌 사례가 있는데, 그 예로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의 해제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 … 「필원잡기」에서 말하기를 … 「강목통감(綱目通鑑)」에서도 그렇게 하였으나, 그 훈의(訓義)의 정밀함은 고급에 없는 것이다. 근래에 명나라에서 편찬한 「강목통감(綱目通鑑)」을 보았는데, 거칠고 엉성한 부분이 아주 많고, 또 주해를 글귀 아래에 붙이지 않고, 매권(每卷)의 끝에 붙여서 열람하기에 불편하였다. 나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마땅히 우리나라의 「훈의」를 제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훈의」가 완성된 것은 정통(正統) 병진년이고, 「집람」이 완성된 것은 최근의 일이므로, 중국에서 「집람」을 편찬할 때에 우리나라의 「훈의」를 보았다라면 반드시 탄복하고 칭찬하여 마지않았을 것이다(思政殿訓義 … 綱目通鑑亦如是 其訓義之精 今古所無 近見今皇朝所撰綱目通鑑 頗有疏漏處 又不夾註於句下 以附於每卷之末 觀覽亦不便 臣妄意當以我朝訓義爲第一 訓義之成 在正統丙辰 而輯覽之成 在近日 當中國輯覽之時 見我國訓義 則必歎賞不暇矣).<sup>62)</sup>

비록 위의 해제는 김휴가 조선전기의 문신인 서거정이 지은 「필원잡기(筆苑雜記)」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술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것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대부분의 양반계층이 소화(小華)를 자처하면서 중국 중심의 사고관을 지닌데 비해 당시 우리나라 중심의 사고를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 같은 그의 발상은 스승인 여헌 장현광(旅軒張顯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젊은 시절 스승을 찾아뵈었을 때, 여헌(旅軒)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

爲非而濫賜獎與 且曰 是書之作 所以欲徵文獻 欲徵文獻者 欲知其人物之盛衰 文章之高下 世道之升降焉耳.

62) 위의 책. 505-506. 思政殿訓義.

나라의 문헌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sup>63)</sup>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는 『훈민정음』의 해제에서도 “초종성(初終聲)이 각 여덟 자, 중성(中聲)이 열한 자로 그 자체(字體)는 인도글자인 범자(梵字)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여러 나라의 말소리 가운데 한자(漢字)로는 기록할 수 없는 것을 다 통하여 막힘이 없었다.”<sup>64)</sup>고 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비록 『훈민정음』이 왕명으로 편찬한 서적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당시에 천하게 여겨서 양반계층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한글에 이 같은 평가를 내린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각 주제분야의 서적 가운데 그 내용적 가치가 높거나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례로 『국조보감』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조보감』, … 이 책은 진실로 천만세 자손들의 보감이다(是書也 誠爲千萬世子孫之寶鑑).<sup>65)</sup>

위의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조보감』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정형(李廷馨)이 편찬한 『동각잡기(東閣雜記)』에서도 “국가의 전고와 조정의 득실에서부터 존귀하고 현달한 사람들 간의 사적과 언론을 기술한 것인데, 그 내용을 다른 소설가와 비교해 보면 가장 상세하다.”<sup>66)</sup>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편찬한 의서인 『의방류취(醫方類聚)』에 대해서도 “실로 의가의 거해(鉅海)이자指南(指南)”<sup>67)</sup>이라고 하는 등 각 주제분야에서 내용이 뛰어난 서적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병요(兵要)』<sup>68)</sup>, 『농사직설(農事直說)』<sup>69)</sup>, 『풍소궤범(風騷軌範)』<sup>70)</sup>, 『학자

63) 위의 책. 1. 海東文獻錄序.

但旣爲東方之人 則東方文獻 不可不知.

64) 위의 책. 518. 訓民正音.

初終聲各八字 中聲十一字 字體依梵字爲之 本國及諸國語音文字所不能記者 悉通無礙.

65) 위의 책. 378. 國朝寶鑑.

66) 위의 책. 409. 東閣雜記.

李廷馨所著 記國家典故朝廷得失 以及搢紳間事蹟言論 比諸小說家 最爲詳.

67) 위의 책. 531. 醫方類聚.

我世宗大王 始開纂輯 歷世祖成宗數聖而書成 備集群方 該論衆證 實醫家之鉅海指南也.

68) 위의 책. 449. 兵要.

지남도(學者指南圖)」<sup>71)</sup> 등 여러 종이 있다.

이처럼 『해동문헌총록』에서는 수록된 서적 가운데 내용이 우수하거나 뛰어난 경우 거기에 걸맞은 평가를 내려줌으로써 후학들이 효율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지침 또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 2.1.3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하거나 수록 범위가 방대한 경우

『해동문헌총록』의 해제에서는 수록된 서적 가운데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하거나, 특정주제에 대해 수록범위가 아주 방대한 서적에 대해 평가를 내리주고 있다.

먼저 각 주제분야에서 기존의 여러 학설을 폭넓게 수집하고 종합하여 편찬한 사례로 『예기일초(禮記日抄)』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기일초』 어효침이 집현전에 있을 때 『예기(禮記)』를 임금께 강독하면서 여러 대가들의 중요한 학설을 널리 모으고 빠짐없이 상세하게 해석한 것이다 (禮記日抄 魚孝瞻在集賢殿 進講禮記 仍博採諸家要說 解釋該貫).<sup>72)</sup>

이처럼 『예기일초』의 해제에서 여러 대가들의 학설을 종합하여 편찬한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서적으로 『계몽전의(啓蒙傳疑)』<sup>73)</sup>,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sup>74)</sup>, 『악학궤범(樂學軌範)』<sup>75)</sup>, 『대동

---

我英廟命儒臣鄭麟趾等 輯歷代攻戰之可戒可法者.

69) 위의 책. 552-553. 農事直說.

成渾書其後曰 眞學稼之妙訣 農夫之所先也.

70) 위의 책. 562. 風騷軌範.

成俔嘗在玉堂 與同僚權健 … 申從濩等撰集 自漢魏至于元季 古體詩可爲楷範者 分爲前後集.

71) 위의 책. 344. 學者指南圖.

鄭道傳所著 權近三峰集序云 先生著述 有學者指南圖 義理之精 瞭然在目 能盡前賢所未發.

72) 위의 책. 325. 禮記日抄.

73) 위의 책. 322. 啓蒙傳疑.

退溪先生所著啓蒙書 諸家之有分異合同者 旁通而曲暢 更無餘蘊.

74) 위의 책. 467-468. 海東諸國記.

申叔舟撰進 … 我國館饋之式 無不備載.

운옥(大東韻玉)<sup>76)</sup>, 『축목서(畜牧書)』<sup>77)</sup>, 『동사찬요(東史纂要)』<sup>78)</sup>, 『향약제생집성방』<sup>79)</sup> 등 여러 종이 있다.

다음으로 그 서적의 수록 범위가 대단히 방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거정이 편찬한 『필원잡기(筆苑雜記)』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원잡기』 본조 서거정 지음. 대개 구양공의 『귀진록』을 본받았으며, 또한 국로(國老)의 한담(閑談)과 동헌(東軒)의 잡록(雜錄)을 취하여 편찬한 것이다. 모두 우리 동방의 일을 두루 채록하여, 위로는 조종 창업의 큰 덕에서 아래로는 존귀하고 현달한 사람들의 언행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일에 미쳤으며, 정사의 득실, 문장의 높고 낮음, 국가의 전고, 여항의 풍속에 이르기까지 사관이 기록하지 못한 것도 갖추어 기록해서 빠짐이 없었다(筆苑雜記 本朝徐居正所著 蓋法歐陽公歸田錄 又取國老閑談 東軒雜錄而爲之 皆博採吾東之事 上述祖宗創垂之大德 下及搢紳間言行之可法者 以至政事得失 文章高下 國家典故 閭巷風俗 史官所不記者 備錄無遺).<sup>80)</sup>

이처럼 『필원잡기』에 수록된 내용의 범위가 방대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용재총화(慵齋叢話)』의 해제에서도 “국사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도 모두 수록하고 있다.”<sup>81)</sup>고 하며 그 내용의 방대함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서적으로는 『해동야언(海東野言)』<sup>82)</sup> 등이 있다.

75) 위의 책. 443. 樂學軌範.

先言作律之原 次言用律之方 樂器儀物形體造作之事 舞蹈綴兆進退之節 無不備載.

76) 위의 책. 524. 大東韻玉.

權文海所撰 中原書籍所記及我東國諸書 無不搜輯 排字記事凡例 依韻府群玉 頗致纖悉 歷可歷考.

77) 위의 책. 555-556. 畜牧書.

我光廟 命撰畜牧書 先圖其形 次論其相 牧養治療調習之法 無不備載.

78) 위의 책. 368-369. 東史纂要.

吳滄所撰 … 蓋旁搜東國諸書 纂集以成者也.

79) 위의 책. 528. 鄉藥濟生集成方.

國初 趙浚等始置濟生院 哀集諸方 又採東人經驗者 分門類編.

80) 위의 책. 404. 筆苑雜記.

81) 위의 책. 405. 慵齋叢話.

成俔所著 … 國史所未備者 悉在是編.

이처럼 「해동문헌총록」에서는 내용이 우수한 서적과 더불어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하거나 수록 범위가 넓은 서적들을 함께 평가해 줌으로써, 후학들이 독서하는데 폭넓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서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 2.1.4 기존 서적의 핵심내용을 정선하거나 요약 정리한 경우

이 유형은 당시 선비들이 독서를 하는데, 서적의 분량이 너무 많을 경우 그 내용을 다 읽기는 어려우므로 이들 책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수만을 정선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편찬한 서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먼저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언묘선(精言妙選)」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언묘선」. 율곡 이이가 고시를 수집(搜集)하여 여러 문체를 갖추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정수로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가려내서 이를 모아서 8편을 만들고, 권점을 붙였다(精言妙選 李栗谷珥 搜集古詩 備得衆體 乃就其中 採其最精而可法者 集爲八篇 加以圈點).<sup>83)</sup>

이처럼 「정언묘선」이 고시 가운데 가장 표본적인 시를 정선하여 편찬한 것에 대해 평가해 주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서적으로는 「오례의초(五禮儀抄)」<sup>84)</sup>, 「성학집요(聖學輯要)」<sup>85)</sup>, 「선문철영(選文掇英)」<sup>86)</sup>, 「삼한귀감(三韓龜鑑)」<sup>87)</sup> 등

82) 위의 책. 379-380. 海東野言.

許筇所撰 … 荷谷許美叔 稟稗諸家小說 錄爲此篇 列聖創業守成之規 諸臣賢否得失之跡 班班可考.

83) 위의 책. 565. 精言妙選.

84) 위의 책. 434. 五禮儀抄.

五禮儀帙繁 不便於考覽 故外官及民間所行之禮 抄成上下卷.

85) 위의 책. 790-791. 聖學輯要.

李珥以陳西山大學衍義 卷帙太多 猶欠簡要 似記事之書 非實學之體 遂摭四書六經及先儒之說 歷代之史 刪煩就要 彙分次第 編成五卷以進.

86) 위의 책. 566. 選文掇英.

李山海就文選書 抄錄其文之可法者.

87) 위의 책. 569. 三韓龜鑑.

여러 종이 있다.

대개 학문을 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주제분야이든 가장 훌륭한 서적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상 그 모든 책들을 다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동문헌총록』에서는 중요한 서적의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한 서적을 수록하여, 당시 선비들이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서적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 2.1.5 대중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편찬한 경우

『해동문헌총록』에는 한자를 모르는 대중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한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 서적으로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해구급방』 허준이 왕명을 받고 편찬함. ... 널리 속방(俗方)을 수집하고 한 조목 씩 차례로 번역하여 비록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모두 보고 치료할 수 있으니, 구급에 도움 됨이 아주 긴요하다고 하겠다(諺解救急方 許浚奉教撰 ... 廣集俗方 逐條翻譯 雖未知文字者 亦皆可考而治之 其有資於救急 可謂緊矣).<sup>88)</sup>

이처럼 『언해구급방』이 한자를 모르는 일반 대중도 쉽게 읽고 치료할 수 있도록 편찬한 책임을 밝혀 줌으로써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번역소학(翻譯小學)』에서도 “소학이 초학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 인쇄하여 널리 유포시키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아는 자가 드물어 학습이 쉽지 않은 점을 염려하여 드디어 김전, 최숙생, 조광조, 김정국 등에게 명하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바쳐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sup>89)</sup>고 하였다. 이 기준에

趙云乞精選我國古今名賢所製 絕句短律長篇 撰爲一帙.

88) 위의 책. 536. 諺解救急方.

89) 위의 책. 509. 翻譯小學.

我中廟以爲小學一書 切於初學 欲廣印流布 而尙患國人甚少解文字 學習未易 遂命金詮 崔淑生 趙光祖 金正國等 以方言譯解以進 使民以曉.

해당하는 서적으로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sup>90)</sup>, 「식료찬요(食療纂要)」<sup>91)</sup> 등이 있다.

### 2.1.6 내용적인 가치가 없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동문헌총록」에서는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냉철하게 지적하고, 심한 경우에는 볼 필요도 없는 책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이처럼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제한 대표적인 사례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고려 인종의 명을 받고 김부식이 찬진함. … 「필원잡기」에서 말하기를 … ‘김부식이 「삼국사」를 지을 때, 「통감」, 「삼국지」, 「남사」, 「북사」, 「수서」, 「당서」의 내용을 거두어 모아서 전(傳), 기(紀), 표(表), 지(志)를 만들었으나, 전적으로 믿을만한 책이 못 된다. 사건을 기록하는데 있어서도 매번 이미 나온 서적을 인용하였으니, 더욱 역사를 쓰는 체제가 아니다. 또 침벌(侵伐), 회맹(會盟) 등의 사실도 하나의 사실을 신라기, 고구려기, 백제기에 중첩해서 적고, 그 문장도 조금도 변경하지 않았으니 역시 취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三國史記 高麗仁宗 命金富軾撰進 … 筆苑雜記曰 … 金富軾作三國史 掇拾通鑑三國志南北史隋唐書 爲傳紀表志 已非傳信之書 至於記事 每引所出之書 尤非作史之體 又如侵伐會盟等事 以一事而疊書於三國紀 文不稍變 亦不足取).<sup>92)</sup>

상기 해제에서의 평은, 비록 「필원잡기」의 기술을 인용한 말이지만, 「삼국사기」에 대해 불만한 책이 못 된다고 혹평하고 있는 것이다. 김휴는 김부식에 대해 “문장으로 세상에 유명하다.”<sup>93)</sup>고 하여 그를 명문장가로 평가했지만, 「삼국사기」의 해제에서 그 내용상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와 같이 혹평을 가한 것이

90) 위의 책. 536. 簡易辟瘟方.

中廟特命金順蒙劉永貞等 抄諸方治瘟之法 纂爲一編 飭以方言 印頒中外 使人人易曉 雖窮村僻巷 皆得依方救活.

91) 위의 책. 542. 食療纂要.

各門物類之下 或以諺釋 使人易考而易曉以進.

92) 위의 책. 357-358. 三國史記.

93) 위의 책. 121. 金富軾文集.

金富軾所著 … 以文章名世.

다. 결국 김휴는 좋은 점은 좋은 대로 살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덮어두지 않고 이를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다.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해제에서도 “그 말이 황당하고 허탄해서 믿을 것이 못 된다.”<sup>94)</sup>고 하며 혹평을 하고 있다. 김휴는 비록 승려의 저작이라도 그 내용이나 인물이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높은 평가를 보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동문헌총록』에서는 그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책은 그 사항을 지적해 주고, 내용상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불 필요도 없다고 냉철하게 평가해 주어서 독자들에게 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2.2 사상적 가치

여기에서 말하는 사상적 가치란 유가적 사상 또는 도학과 연계된 서적을 의미한다. 당시 양반지배계층의 독서의 목적이 입신양명(立身揚名)과 도학실현(道學實現)에 있었던 만큼, 이 사상적 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은 당시 유가 질서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들을 의미한다. 이 사상적 가치는 1) 공자를 추존한 대학자의 저작인 경우, 2) 유가의 정치사상을 담은 경우, 3) 국가의 변란 및 충의 사상을 담은 경우, 4) 후대에 경계가 될 만한 내용을 담은 경우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1 공자를 추존한 대학자의 저작인 경우

『해동문헌총록』은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인 성리학적인 질서 하에서 편찬된 것이다. 여기에는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등 한국에서 유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들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이들 학자의 위치를 감안할 경우, 그들의 저작은

94) 위의 책. 359-360. 三國遺事.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 住持圓鏡沖照大禪師一然撰 其說多誕妄 不足信.

그 시대의 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해동문헌총록』에서는 경서류(經書類), 예악류(禮樂類), 소학류(小學類) 등에서 유교 경전과 관련된 서적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은 주로 경서류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서류는 고려시대 주역에 능통했던 윤언이(尹彦頤)의 『역해(易解)』를 시작으로 하여, 주자의 『역학계몽(易學啓蒙)』을 세조가 요해한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 권근이 편찬한 오경주석서인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 어효침(魚孝瞻)이 『예기』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중요 학설을 발췌하여 주석을 붙인 『예기일초(禮記日抄)』, 춘추 4대가들의 전(傳)을 집성한 『춘추사전(春秋四傳)』, 이황이 사서삼경을 주석하고 해설한 책인 『경서석의(經書釋義)』, 정여창(鄭汝昌)의 『용학주소(庸學註疏)』, 이언적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보유대학(補遺大學)』 등 사서삼경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학자들의 주해서 또는 해설서 등을 수록하고 있다.

## 2.2.2 유가(儒家)의 정치사상을 담은 경우

『해동문헌총록』에는 옛사람의 이상적인 정치를 본받아 훌륭한 정치를 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유가의 정치사상을 담은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도전(鄭道傳)이 저술한 『경제문감(經濟文鑑)』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문감』, 정도전이 전대의 전적(典籍)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관련 있는 것을 고구하여 책 한권을 편찬하고 서명을 『경제문감』이라고 했다. 명위(名位)의 연혁, 직무상 임무의 잘잘못, 인물의 어둡과 그렇지 못함을 조목 별로 빠짐없이 기재하였다. 또한 맨 앞에 재상에 대해 기술하고, 그 다음에 대간, 부위병 및 감사, 수령의 순으로 기술하였다(經濟文鑑 鄭道傳考究前代典籍有關於治道者 撰爲一書 名曰經濟文鑑 名位沿革 職任得失 人物之賢否 無不條載 又首之以宰相 次之以臺諫 又次以府衛兵及監司守令).<sup>95)</sup>

95) 위의 책. 800. 經濟文鑑.

조선 건국 초기에 정도전이 조선의 정치 조직에 대한 구상을 밝혀 놓은 『경제문감』에서 당시 정치가들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제왕명감(帝王明鑑)』에서도 “신숙주(申叔舟)가 여러 가지 책을 널리 상고하여 군주의 덕에 절실하고 정치와 교화와 관련해서 경계로 삼고 본받을 만한 것을 조목별로 모아 책을 지은 것”<sup>96)</sup>이라고 하여 당시 정치가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역대명감(歷代明鑑)』<sup>97)</sup>, 『유선서(諭善書)』<sup>98)</sup>,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sup>99)</sup> 등 여러 종이 있다.

### 2.2.3 국가의 변란 및 충의(忠義) 사상을 담은 경우

『해동문헌총록』에서는 왕조의 교체, 외적의 침입과 같은 국가의 변란을 당했을 때 국가를 구하기 위해 몸 바친 충신, 열사의 공적에 대해 밝혀주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의 변란 때 큰 공을 세우거나 의병을 일으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의 변란 때 큰 공을 세운 사례로 강감찬장군의 『낙도교거집(樂道郊居集)』에 나타난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도교거집』 강감찬 지음. … 현종 때 거란병을 물리치고 개선하여 돌아오

96) 위의 책. 491. 帝王明鑑.

申叔舟博考諸書 摭其有切於君德 關於治教 可戒可法者 彙集成書.

97) 위의 책. 492-493. 歷代明鑑.

弘治十二年 命成倪權健等 類纂歷代君臣善惡之可爲勸戒者以進 遂將歷代君臣鑑及本國所撰帝王后妃明鑑等書 參考歷代本史 撮其要 刪其繁 或去其全條 或添入新段 要爲勸戒而止 釐爲三十七卷.

98) 위의 책. 500. 諭善書.

我光廟命梁誠之 爲教養世子 歷彩經傳及本國寶錄可法可戒者.

99) 위의 책. 327-330. 中庸九經衍義.

李晦齋先生所撰 未及成書而卒 … 嗚呼 自古聖賢言治道者 莫詳於大學 莫要於九經 西山衍之前 而先生暢之於後 而治天下國家之道 大備而無餘蘊矣.

자, 왕이 영파역(迎波驛)에 친히 마중 나와 채색으로 아름답게 꾸민 무대를 설치하고, 음악을 갖추어 장수와 병졸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고, 금화팔지(金花八枝)를 친히 그의 머리에 꽂아 주셨다(樂道郊居集 姜邯贊所著 … 顯宗時却契丹兵凱還 王親迎于迎波驛 結彩棚 備樂宴將士 以金花八枝 親插其頭).<sup>100)</sup>

이처럼 거란 대군을 물리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명장 강감찬에게 왕이 친히 금화팔지(金花八枝)를 꽂아주면서 그의 전공을 치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변란 때 의병을 일으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경명(高敬命)의 『제봉집(霽峯集)』에서는 “임진왜란이 나자 공이 분개하여 창 의병(倡義兵)을 조성해서 한창 세력을 떨치고 있는 적을 여러 차례 무찔렀는데, 하루는 적과 대항하다가 진(陣)의 적병이 대거 몰려와서 사망에서 포위를 당하자 병사들이 흩어져서 도망쳤다. 그 날 공이 아들 인후(因厚)와 함께 전사하였다.”<sup>101)</sup> 고 하여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아들과 함께 장열하게 전사한 고경명의 행적에 대해 밝혀주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 때 많은 활약을 한 사명대사에 대해서도 “휴정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때 의병을 규합해서 여러 차례 적군을 무너뜨렸으며, 왕명을 받들어 일본에 사신으로 갔는데, 일본인들이 신승(神僧)이라고 칭하며 모두 공경하고 받들었다.”<sup>102)</sup>고 하면서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이단에 해당하는 불가의 고승에 대해 비하하지 않고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난을 당해서 외적을 물리친 내용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순국한 열사(烈士)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외적의 지배 또는 왕조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절개를 지켜서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인물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례로

100) 위의 책, 120. 樂道郊居集.

101) 위의 책, 276. 霽峯集.

高敬命所著 … 壬辰之變 公憤慨倡義兵 屢勦方張之賊 一日與賊抗 陣賊兵大至四圍 士卒潰散 公與子因厚死之.

102) 위의 책, 318. 四溟堂集.

釋惟政所著 惟政號鐘峯 … 休靜弟子 … 壬辰倭亂 糾合義徒 屢摧賊軍 又承命往使日本 日本人以爲神僧 皆敬奉焉.

안축(安軸)의 『관동와주집(關東瓦注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동와주집』 안축 지음. … 충숙왕(忠肅王)이 원 나라에 억류당했는데, 안축이 말하기를 ‘왕이 옥을 당하면 신하는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도리’라고 하면서 글을 올려 호소하였다(關東瓦注集 安軸所著 … 忠肅王被留于元 軸曰 主辱臣死 乃上書訟之).<sup>103)</sup>

이처럼 고려시대 원나라의 지배 하에서 우리나라 왕에 대한 충정을 아끼지 않은 충신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고 있다. 유숙(柳淑)의 문집인 『사암집(思庵集)』에서도 “그가 충목왕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갔는데, 홀로 절개를 지키고 변하지 않았다.”<sup>104)</sup>고 하여 원나라에 변절하지 않고, 자신의 왕에 대한 충절을 지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목은집(牧隱集)』의 해제에서도 “이색이 정몽주와 같은 마음으로 시종일관 신하의 절개를 변치 않았다.”<sup>105)</sup>고 하면서 그의 절개를 극찬하고 있으며 『야은선생언행습유(治隱先生言行拾遺)』에서도 그의 지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106)</sup>

이처럼 『해동문헌총록』에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순국한 선열들과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신하로서의 의리와 충절을 지킨 충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함으로써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 2.2.4 후대에 경계가 될 만한 내용을 담은 경우

『해동문헌총록』에서는 충신과 열사에 관한 저작과 신하로서의 의리와 절개를

103) 위의 책, 140. 關東瓦注集

104) 위의 책, 138-139. 思庵集.  
柳淑所著 … 從忠穆入元 獨守節不變.

105) 위의 책, 144. 牧隱集.  
李穡所著 … 與鄭文忠公同心 終始不變臣節.

106) 위의 책, 154-155. 治隱先生言行拾遺.  
退溪先生曰 志操高潔 學問醇正 … 柳眉巖曰 孝於親 忠於君 隆於師 盡臣子在三之節 雖古之醇儒 不是過也.

지킨 인물의 저작에 대해 높이 평가하여 후대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당시 품행이 좋지 않은 인물에 대한 내용을 밝혀서 후대에 경계(警戒)를 삼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동정집(東亭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정집」 염홍방 지음. … 임견미 등과 권세를 잡고 마음대로 전횡하여, 관작을 팔았다. 남의 전토를 빼앗아 산과 들을 차지했고, 남의 노비를 빼앗은 것이 천명 백명의 무리에 이르렀다. 주인을 배반한 노예와 부세(賦稅)를 도피한 백성들이 저자같이 모여 들어도 염사와 수령이 감히 징발(徵發)하지 못하였다. 백성은 이산하고 도적은 성하고 공사(公私)의 재물이 고갈되었다. 그가 주살 당하자 사람들이 길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다(東亭集 廉興邦所著 … 與林堅味等 秉權自恣 賣官鬻爵 奪人土田 籠山絡野 奪人奴婢 千百爲群 背主之隸 逃賦之民 歸之如市 廉使守令 莫敢徵發 民散寇熾 公私匱竭 及被誅 道路歌舞).<sup>107)</sup>

고려 말 매관매직에 남의 토지와 노비까지 강탈하는 비행을 일삼아 이성계, 최영 등에게 처형당한 염홍방에 대해 혹평을 하고 후대에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왕에게 아첨하는 글을 올려서 왕에게 총애를 얻은 신하에 대해서도 그 실상을 밝히고 있는데, 「목계집(木溪集)」의 해제에 그 사실이 잘 논급되어 있다.

「목계집」 강혼 지음. … 연산군이 사랑하는 첩을 잃고 매우 슬피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뇌문(誄文)을 쓰게 했는데, 강혼이 제문을 지어서, 그 슬픈 상황을 지극히 아름답게 찬양하였다. 이로부터 [연산군에게] 매우 사랑을 받았으나 사론(士論)에서 천하게 여겼다(木溪集 姜渾所著 … 燕山喪其嬖姬悼甚 令群臣誄之 渾作祭文 極稱美悲傷之狀 自是 頗得幸 爲士論所賤).<sup>108)</sup>

이처럼 연산군에게 아첨하는 글을 지어서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당시 선비들에게 천한 사람으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후대에 경계하고 있다. 강혼은 김일손에 못지않은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로 알려져 있지만, 선비의 정도를 지키지 못한 그의 행동에 대해 경계하도록 한 것이다.

107) 위의 책. 158. 東亭集.

108) 위의 책. 229-230. 木溪集.

이밖에 타고난 재능이나 문장이 뛰어난 데 행실이 좋지 않아서 혹평한 사례도 있다. 변계량(卞季良)의 문집인 『춘정집(春亭集)』의 해제에서 “그의 타고난 재능과 학문은 훌륭하지만, 성격이 인색하고 문장도 무르고 약하다는 평을 면치 못한다.”<sup>109)</sup>고 하고, 황희의 문집인 『방헌집(龐軒集)』에서도 “황희가 조선시대의 재상 가운데 으뜸이긴 하지만, 고려시대에 벼슬한 사람이 조선시대에도 벼슬한 것에 대해 비웃는 사람이 없지 않다.”<sup>110)</sup>고 하여 인물의 장단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3.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의 비교

여기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 수준평가에 대한 내용을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송영희<sup>111)</sup>는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에서 카터(Carter), 캐츠(Katz), 가드너(Gardner), 스피러(Spiller) 등 장서개발 분야의 주요 학자들이 그들의 저서에서 도서관 자료를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해 다양하게 기술한 내용 가운데 공통 요소를 추려서 1) 저작사항에 관한 것으로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에 관한 것, 2) 내용에 관한 것으로 주제, 주제의 범위, 주제를 다루는 방식, 표현, 문체 등에 관한 것, 3) 물리적인 특성으로 활자, 지질, 제본, 삽화 등에 관한 것, 4) 도서관 장서로의 유용성 평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윤희운<sup>112)</sup>도 『장서관리론』에서 일반 도서관의 선택기준으로 1) 저자의 권위, 2) 주제와 범위, 3) 물리적 특성, 4) 독자에 대한 가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09) 위의 책, 189-190. 春亭集.

卞季良所著 … 天資明敏 學問精博 … 然性吝嗇 其文章 亦未免軟脆之評.

110) 위의 책, 190-191. 龐軒集.

黃喜所著 … 論者稱我朝賢相 以公爲首 … 但公以前朝舉人 入仕我朝 不能無譏.

111) 송영희 외 3인,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122-123.

112) 윤희운, 『장서관리론』(대구: 태일사, 2007), 140.

두 사람 모두 서양의 여러 대학자들의 기준을 토대로 그 주요한 골자를 추려서 구분한 것이다. 위의 두 사람의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빠대는 동일하게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에 필자는 상기한 현대 문헌정보학자들이 제시한 장서평가기준 가운데 『해동 문헌총록』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인 수준평가와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서 1) 저자 사항, 2) 내용사항, 3) 도서관 또는 독자에의 유용성 등 세 가지로 정리하여 각 항목별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 3.1 저자 사항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을 보면 저자의 권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각 주제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다른 후학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유명한 학자의 저술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해동문헌총록』 역시 수록된 서적의 해제에서 저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휴는 해제를 기술함에 있어 서적의 내용적인 근간이 될 저자의 인물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해동문헌총록』에서는 그 후에 나온 다른 해제목록에서 보다 저자의 학식과 학문뿐 아니라 저자의 인품과 문장력까지도 보다 면밀하게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선비 중에서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김종직(金宗直), 이황(李滉) 등 당시 선비들에게 종주(宗主)의 역할을 하는 선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대 문장가이자 시인으로 신라시대의 최치원(崔致遠), 고려시대의 임춘(林椿), 김부식(金富軾), 이인로(李仁老), 박승임(朴承任), 홍연충(洪彦忠), 이행(李行), 서거정(徐居正), 박은(朴闇), 정구(鄭逵), 박인량(朴寅亮) 등 당대 최고의 문장가와 시인들의 저작을 수록하였다. 당시 불가의 승려인 평연(宏演)의 시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림으로서 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당시의 고문대책(高文大冊)을 작성한 성현(成俔), 이규보(李奎報), 김양경(金良鏡), 이인복(李仁復) 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밖에 저자가 특정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례로 당대 최고의 명필가인 안평대군(安平大君)을 비롯하여, 역사에 해박한 윤희(尹淮), 초서와 예서에 능한 이계신(李濟臣), 역학에 정통한 윤상(尹祥) 등 여러 인물들을 선정하였으며, 전 주제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인물로 김수온(金守溫), 최유청(崔惟淸), 조성(趙晟) 등 여러 인물의 저작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외적을 물리치거나 의병을 일으키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명장과 선열들의 위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거란의 10만 대군을 물리치고 개선한 강감찬(姜邯贊)장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고경명(高敬命)부자와 사명대사(四溟大師)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당시 선비들이 중시한 지조와 충절을 지킨 인물들로서, 원나라의 지배 하에서 충절을 지킨 안축(安軸), 유숙(柳淑) 등과 조선왕조에 영합하지 않고 절의를 지킨 고려 유신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길재(吉再) 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동문헌총록』에는 저자의 학문, 문장, 인품 등 여러 면에서 훌륭한 뛰어난 저자의 저작이 수록되었으며, 저자의 평가방식 또한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더 상회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내용 사항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에서 내용 사항이란 각 주제, 주제의 범위, 표현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독자에 대한 기여도,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정보의 정확성 등 주로 저작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sup>113)</sup>

『해동문헌총록』에서는 각 주제분야에서 내용이 뛰어난 책들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해동문헌총록』에서는 내용이 좋은 책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호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혹평을 가하는 등 수록된 도서들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해동문헌총록』에서는 책의 내용이 우수한 서적,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하거나

113) 송영희 외 3인,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122-123.

수집범위가 방대한 서적, 기존 서적의 핵심 내용을 정선하거나 요약 정리한 서적,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찬한 서적, 국가의 변란 및 충의 사상을 담은 서적, 후대에 경계가 될 만한 내용을 담은 서적 등 당시 상황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우수한 서적을 정선하여 수록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유가적인 질서와 반대되는 사상으로 불가(佛家)의 서적도 수록되었는데, 당시에 이단(異端)으로 배척하는 불가의 서적과 그의 저자인 승려에 대해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 당시의 지배이념이 유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가에서 이단으로 배척하는 불가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도서는 각 주제분야에서 객관적으로 내용적 가치가 높은 서적들을 정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3 도서관 또는 독자에의 유용성(有用性)

도서관에서의 유용성(有用性)이란 소장된 책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이용될 것이며, 독자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또한 얼마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가, 도서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가 등에 중점을 둔 문제이다.<sup>114)</sup>

『해동문헌총록』은 김휴가 스승 장현광의 권유로 당시 책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았던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당시 잔존해 있던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대표적인 서적을 20여 년 동안 조사하여 편찬한 해제목록이다.

당시의 선비들과 후학들은 이 목록에 수록된 해제를 통해서 도서 및 저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목록은 당시 선비들이 독서할 책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들의 독서생활이나 독서의 방향을 잡는데 지침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자사항과 내용사항이다.

114) 위의 책, 123.

즉, 책의 저자와 책의 내용이 그 책의 가치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해동문헌총록』에서는 저자에 가장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내용을 평가하였다. 김휴는 평생의 숙원사업으로 20여 년 간 이 목록을 편찬하였다. 그가 당시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배출한 인물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 『해동문헌총록』을 편찬한 만큼 이 목록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인 수준은 현대의 양서(良書)의 평가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훌륭한 책들이라 할 수 있다.

#### 4. 결 론

본 논문은 경와 김휴가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인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인 수준평가에 대해 고구(考究)한 것이다. 이 질적 평가유형은 『해동문헌총록』의 범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전체 저록(著錄)에 기술된 해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 그 서적에 대한 질적 평가사항을 추출하고 범주화하여, 이를 귀납적으로 유추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고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609종의 서적 가운데 대략 250종(41%)의 해제에 평가사유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인 수준을 내재적 가치, 사상적 가치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음에 이를 현대문헌정보학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해동문헌총록』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최초의 도서해제목록으로, 김휴가 1616년(광해군 8년)에서 1638년(인조 16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명문대가에 소장된 문헌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편찬한 것이다. 당시 김휴가 중국의 『문헌통고 경적고(文獻通考 經籍考)』에 버금가는 목록을 편찬하려는 야심을 지녔으며, 그가 20여 년이란 긴 세월동안 평생의 숙원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여 이 목록을 편찬한 만큼 여기에 수록된 책들은 안동지역에만 한정되

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최선을 다해 서적을 조사한 후 나름대로 엄밀하게 정선한 책들을 수록하였을 것이다. 이 『해동문헌총록』은 당시까지 어떤 책이 전래되고,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출판 정보를 제시하고, 이 목록에 수록된 서적에 대한 해제는 선비들이 독서할 책을 선정할 때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해동문헌총록』에서는 거의 모든 도서에 해제를 붙였는데, 거기에서 책의 저자와 그 내용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비 중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당시 선비들에게 종주(宗主)의 역할을 하는 선비의 저작과 당대 최고의 문장가와 시인들의 저작을 수록하였다. 또한 당시에 고문대책(高文大冊)을 만든 인물들과 서예, 역학, 통역 등 특정분야에 조예가 있는 인물과 전 주제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인물들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외적을 물리치거나 의병을 일으키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위업과 당시 선비들이 중시한 지조와 충절을 지킨 인물들의 절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시대를 초월하여 존경할만한 대학자들의 저작과 각 주제분야에서 내용이 가장 뛰어난 서적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볼만한 가치가 없는 서적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비평을 가하고 있다. 여러 학설을 집대성한 서적, 독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방대한 서적을 요약 정리한 서적,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도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서적 등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양반들이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지닌 데 비해 김휴는 우리나라의 서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서적의 우수성을 밝혔으며, 당시 유가적인 질서 속에서 당시 이단시 했던 불가의 서적에 대해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적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은 후학들에게 독서의 지침 역할을 하며, 그들에게 보다 완숙하고 폭 넓은 학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각 저록(著錄)의 해제를 통해서 본 수록 도서의 질적인 수준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상적인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평가에 있어 대단히

객관적이고 포용성을 지닌 것으로서,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양서(良書)의 평가기준에 비추어 평가하여도 하나의 손색이 없는, 아니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상회하는 훌륭한 것임을 장담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강주진. “해동문헌총록해제와 간행서.” 『해동문헌총록』. 서울: 학문각, 1969. 1-7.
- 김건곤. “『해동문헌총록』 소재 고려문집 연구: 부전문집을 중심으로.” 『藏書閣』 18(2007. 12). 57-88.
- 김약슬. “경와집에 대하여.” 한국서지학회. 『서지학』 7(1982). 121-125.
- 김 휴. 『해동문헌총록』. 영인본. 서울: 학문각, 1969.
- 리재철.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성곡논총』 7(1976). 580-598.
- 리상용. “『군서표기』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6. 3). 373-395.
- 리상용. “『누관고』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9). 231-262.
- 리상용.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0집 (2005. 6). 247-281.
-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선주논총』 9(2006). 65-98.
- 배현숙. “해동문헌총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75.
- 송영희 외.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 윤남한 해제. “金佺 著 海東文獻總錄.” 영신 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한국학』 2(1974. 3) 5-6.
- 윤희운. 『장서관리론』. 대구: 태일사, 2007.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1